

# 정지용의 「湖水」 소고(小考)

김묘순(우석대)

## 〈목 차〉

- |             |       |
|-------------|-------|
| 1. 서론       | 3. 결론 |
| 2. 「호수」의 분석 |       |

## 1. 서론

시인 정지용은 우리 언어의 깊은 광맥(鑛脈)을 찾아 차분하고 선연한 이미지로 언어를 작품에 상정하였다. 그런데 그의 언어 탐구 의식은 향토어와 토속어로 전이하여 방언의 부림으로 나타난다.

필자는 정지용의 시언어가 특히 그의 고향에서 부러져 계승되고 있는 방언과의 관련성이 매우 밀접함을 발견하였다. 즉 그의 작품의 묘미는 그가 심중에 품고 살던 고향의 언어의식에서 발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방언의 언어의식이 나타난 시 「호수」를 텍스트로 삼아 분석하려하는 바이다.

「호수」에 대해 논의된 바는 많지 않다.

「湖水」(『시문학』, 1930. 5.)와 「湖水 1」(『정지용 시집』, 1935)의 선행연구에서 권영민은 “얼굴 하나 야 / 손바닥 둘 로”처럼 “이 작품의 경우만 예외로 조사와 체언을 구별하여 쓰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시적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sup>1)</sup>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권영민의 “이 작품만 예외”라

는 주장과 달리 각주 2)에서 보여주듯 정지용의 여러 작품에서 체언과 조사의 띄어쓰기<sup>2)</sup>는 많이 발견된다. 권영민의 “어떤 시적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라는 서술 또한 시의 음성과 숨겨진 의미의 밀접한 관계를 간과한 것이다.

이승원은 띄어쓰기를 “강조하려는 의도적 처리”, “생각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sup>3)</sup>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승원의 논의는 『호수』의 수용자인 독자들의 시적 이해를 돕고 있다. 그러나 독자들이 시의 더욱 깊은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는 데는 여전히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최동호는 ‘가리지만’, ‘손바닥’, ‘싫은’, ‘하나’, ‘호수’ 등의 시어 의미와 시를 예시<sup>4)</sup>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최동호의 연구는 『호수』에 나타난 시어들의 의미와 그 시어들이 다른 시에서 쓰인 예를 제시하여 정지용 시어들의 빈출 정도를 파악하는데 기여하였다.

김재홍은 ‘호수’의 사전적 의미를 풀이하고 “시에서 맑은 명상이나 깊은 관조의 상징성을 지닌다.”<sup>5)</sup>고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그도 ‘호수’라는 사전적 의미만을 파악한 듯하다. 그러나 ‘시어 사전’으로써 여러 시를 이해하고 상징적 의미들을 발견하는데 기여하였음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논의들은 『호수』<sup>6)</sup>의 개괄적 해설과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면밀히 보여주는데 기여하였으며 필자도 이 같은 선행연구에 깊이 공감한다. 그러나 정지용은 『호수』의 ‘그리움’이라는 주제 형상화를 위하여 체언과 조사 그

1) 권영민, 『정지용 詩 126편 다시 읽기』, 민음사, 2004, 326면.

2) “청대스님 처럼 푸른” 『바다 1』(21면), “도마뱀떼 같이” 『바다 2』(23면), “귀뜨람이 처럼” 『비로봉』(25면), “꿀벌떼 처럼” 『홍역』(26면), “외로운 황홀한 심사 이어나” 『유리창 1』(33면), “피꼬리 같은 선생님 이야” 『오월 소식』(49면), “페랑이꽃 빛으로 불그레 하다”, “씩씩 뿔아 올라간, 밋밋 하게” 『이른봄아침』(51면), “薔薇꽃 처럼 곱게 피어 가는 화로에 숯불”, “금붕어 처럼 어린 너털 너털한 느낌이야” 『柶榴』(54면) 등 조사의 띄어쓰기가 많이 보인다. 뿐만 아니라 『백록담』(문장사, 1941)에도 “巖古蘭, 丸藥 같이” 『白鹿潭』(195면),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둥아 파릇 하고”, “바깥 風雪소리에 잠잠 하다” 『忍冬茶』(211면) 등. 『정지용 시집』(시문학사, 1935)의 영인본인, 이승원 주해, 『일본 정지용시집』, 깊은샘, 2008.

3) 이승원 주해, 위의 책, 86면.

4) 최동호 편저, 『정지용 사전』,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6면, 134면, 157면, 203면, 335면.

5) 김재홍 편저, 『한국현대시 시어사전』,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3, 1091면.

6) 『湖水』(『시문학』 2호, 1930), 『湖水 1』(『정지용 시집』, 1935), 뒤에 서술될 『호수 1』 등은 특별한 구분을 두고자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 논문에서는 『호수』로 쓰고자 한다.

리고 의존명사를 의도적으로 분리한다. 그렇게 하였을 때 비로소 전통적 3음보의 율격으로 이어지게 됨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선행연구에서 결여된 정지용의 「호수」에 나타난 의도된 시어를 통하여 그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고는 지금까지 연구되어진 정지용의 언어 중 조사법(措辭法)과 관련하여 그의 관습적 방언의식과 운율의식에 비례하여 나타난 조사법을 살펴보고, 「호수」에 나타난 방언과 조사 그리고 음성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 2. 「호수」의 분석

“손자마저도 「호수」<sup>7)</sup>가 할아버지 정지용의 시라는 것을 몰랐다”는 「호수」를 정지용은 1930년 5월에 『시문학』 2호에 「湖水」라는 제목으로 처음 발표한다. 그 후 1935년 시문학사에서 박용철<sup>8)</sup>이 편집하여 『정지용 시집』을 발행한다. 이때 제목은 「湖水 1」로 바뀐다. 이에 시의 표기 변천 과정을 「湖水」(시문학, 1930) ⇨ 「湖水 1」(『정지용시집』, 1935) ⇨ 「호수 1」(민음사, 2004) 순서로 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단, 굵은 시어처리는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이다.

湖水

얼골 하나 야  
손바닥 둘 로  
폭 가리지 만,

보고 시픈 맘  
湖水 만 하니

7) “「호수」라는 시도 그 당시 손거울에 새겨져있는데 시인 이름은 생략되고, 손자들도 「호수」를 알고 있는데 할아버지 정지용 시인 줄을 몰랐다.” 노한나 기록, 「정지용 아들 구관씨가 구술하는 정지용 생애사」, 『관성문화』 제16집, 옥천문화원, 2001, 77~78면.

8) 이승원 주해, 앞의 책, 앞쪽 속표지 사진 설명.

눈 감을 **밖에**.

-『시문학』 2호(1930. 5), 11쪽<sup>9)</sup>

湖水 1

얼굴 하나 **야**  
손바닥 둘 **로**  
폭 가리지 **만**,

보고 싶은 마음  
湖水 **만 하나**  
눈 감을 **밖에**.<sup>10)</sup>

호수 1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하나  
눈 감을 **밖에**.<sup>11)</sup>

위 시에 나타난 ‘—밖에’와 같은 조사 띄움 또는 비문법적인 언어구사가 중부지방의 방언에 속한 옥천지역에 현재에도 계승되고 있다. 비언어적, 비문법적 언어구조는 관습적인 방언으로 성립되어, 아무런 불편 없이 의사소통을 가

9) 권영민, 앞의 책, 327면에서 재인용. 한편, '1930년 5월 20일에 발간된 『시문학』 2호에는 창작시 25편, 번역시 18편을 수록하였는데 정지용은 시 7편과 번역시 2편을 수록.' (전남 강진 시문학과 기념관 참조)

10) 이승원 주해, 앞의 책, 86면.

11) 『湖水 1』의 조사와 어미를 붙여서 현대문법에 가깝게 표기하고 있다. 권영민, 앞의 책, 327면.

능하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지용의 「호수」에서 그 관습적 방언의 일면(一面)과 이들이 동반하는 의미적 자질과 음성적 자질 그리고 외국어 번역의 문제<sup>12)</sup>도 살펴보고자 한다.

## 2.1. 의미적 자질

「湖水」는 정지용이 박용철, 이하운, 김영랑 등과 시문학과 활동을 하면서 『시문학』(1930)에 발표한다. 「湖水 1」은 『시문학』을 주도하였던 박용철이 시집 발간비를 부담하고 정지용의 발표작을 찾고 시집의 순서를 배열하는 등 주도적으로 추진하여<sup>13)</sup> 『정지용시집』(1935)에 재수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湖水」의 2연 1행에서 보인 “보고 시픈 맘”이 「湖水 1」에서는 “보고 싶은 마음”으로 배치된다. 총 2연 6행 구성이며 각 행마다 5음절로 고정하여 30음절 구사로 독자들의 심독(心讀)을 강요하던 「湖水」가 31음절로 변형<sup>14)</sup>을 이룬다.

얼굴 하나 야 / 손바닥 돌로 / 폭 가리지 만, // 보고 시픈 맘 / 湖水만 하니	
/ 눈 감을 밖에. //	-「湖水」 전문
얼굴 하나 야 / 손바닥 돌로 / 폭 가리지 만, // 보고 싶은 마음 / 湖水만 하니	
/ 눈 감을 밖에. //	-「湖水 1」 전문

위에서 보여주듯이 정지용은 독특한 띄어쓰기를 구사한다.

“조사는 ‘자립성이 있는’ 말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품사”<sup>15)</sup>라고 정의되는데, 단어로 보기에는 자립성이 약하고 어미와 같은 굴절요소로 보기에는 고유한 의미 기능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국어의 조사는 그 형태가 이형(異形)과 복합형(複合形)을 합하여 약 480여개나 되어 매

12) 언어는 일반적으로 의미적 자질, 음성적 자질, 영상(기호)적 자질로 이루어진다. 번역시 발신어와 수신어에서도 언어의 이 같은 이 세 가지 자질은 상호 고려될 수밖에 없다. 본고의 목차에서 2의 1, 2와 3은 서로 무관한 듯하지만 이 점에서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3) 최동호, 『정지용 시와 비평의 고고학』, 서정시학, 2013, 52~53면.

14) 이는 정지용의 의도라기보다는 박용철의, 독자들을 배려한 편집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15)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11, 147면.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2013, 93면.

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국어문장의 통사·의미 부문에 관여되기 때문에 국어 문법의 중심적인 과제 중 하나인 것이다.<sup>16)</sup> 한편 어미는 어간에 붙는 가변적 요소<sup>17)</sup>를 이르는 용어이다.

『湖水』에서는 1연의 ‘—야’, ‘—로’, ‘—만’, 2연의 ‘—만 하니’, ‘—박게(밖에)’는 조사와 어미의 정의가 무색하게 의도적으로 띄어 쓰고 있다. 이에 『湖水』에 나타난 조사와 어미를 살펴보면 형태론적 측면의 띄어쓰기를 중심으로 서술하겠다.

첫째, 1연 1행의 조사 ‘—야(필자 강조)’는 체언이 모음으로 끝난 명사 뒤에 붙어 부름의 뜻을 지닌 형격(호격 : 필자 주) 조사<sup>18)</sup>와 형태가 같다. 형태 중심으로 격조사를 분류하면 ‘—야’는 호격조사지만 의미상으로 분류하면 ‘—야’는 ‘얼굴 하나 는(필자 강조)’이라는 ‘한정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주격의 의미로 전환<sup>19)</sup>하게 된다. 그러나 격조사가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고 보조사는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지 않고 특수한 뜻을 더해주기 때문에 통상적인 의미·기능에 따른 분류는 격조사가 아닌 보조사<sup>20)</sup>로 분류해도 무방하리라 여겨진다. 즉, 형태상으로는 격조사, 의미상으로는 보조사에 가깝지만 격조사와 보조사 모두 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둘째, 1연 2행의 ‘—로(필자 강조)’는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이 있는 체언 뒤에 쓰여 수단·방법·재료·기구·이유 등을 표시하는 조사<sup>21)</sup>이다. 이때 ‘—로’는 체언인 수사 ‘둘’ 뒤에 오기에 조사로 보아야한다. 그런데 ‘—로’는 체언과 분리하여 띄어쓰기를 하고 있다.

셋째, 1연 3행의 ‘가리지 만(필자 강조)’에서 ‘—만’도 띄어 쓰고 있다. 이 ‘—만’은 ‘—마는’이라는 의미의 조사<sup>22)</sup>로 적고 있다. 한편 ‘가리다’를 기본형으로 보면 ‘—지만’은 대등적 연결어미<sup>23)</sup>이다. 이때 ‘—지’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16) 국어국문학편찬위원회,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하권, 한국사전연구사, 1994, 2682면.

17) 남기심·고영근, 앞의 책, 152면.

18) 국어국문학회,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2001, 1676면.

19) “회의 서류 준비하셔야죠?”라고 질문하면 “그 거(것)야(필자 강조) 당연히 준비해야지유.” 조숙제(63세, 옥천군 안남면 생). 전순표(60세, 옥천읍 삼양리 생) 대담.

20) 고영근·구본관, 앞의 책, 149~150면.

21) 국어국문학회,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2001, 793면.

22) 국어국문학회, 위의 책, 820면.

에 붙어 그 뜻을 부정하게 하는 연결어미<sup>24)</sup>로 분류하고 있다. 이로부터 ‘—만’은 조사로 분류하여도 체언에 붙여써야하고, 연결어미로 분류하여도 어간에 붙여써야한다.

넷째, 2연 2행의 ‘湖水 만 하니(필자 강조)’에서 ‘—만’은 어떤 사물을 단독으로 일컫는 특수 조사<sup>25)</sup>로 분류하고, ‘—만하지’는 기본형 ‘—만하다’의 어떤 것에 비교하여 그와 같은 정도임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분류한다. 또 다른 분류에서는 의존명사 ‘만’에 ‘하다’가 붙은 의존용언<sup>26)</sup>으로 보기도 한다. 이때 ‘—만’을 의존명사로 처리한다면 권영민의 ‘호수만하니’<sup>27)</sup>는 ‘호수 만하니’로 수정해야한다.

다섯째, 2연 3행의 ‘눈 감을 밖에(필자 강조)’에 나타난 정지용만의 독특한 띄어쓰기에 대한 것이다. 자립명사는 관형어가 선행되지 않아도 문장구성에 지장을 받지 않는데, 의존명사는 관형어의 선행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sup>28)</sup> 한편 ‘—밖에’는 한정 보조사로 쓰이기도 한다.<sup>29)</sup> 『호수』에 나타난 ‘—밖에’는 ‘오직 그것뿐임’을 뜻하는 조사<sup>30)</sup>이며 반드시 뒤에 부정어가 따른다. 그러나 부정어는 생략되어 독자들에게 여운을 남기지만, ‘—밖에’ 앞에 의존명사 없이 조사 ‘—밖에’가 나타난다. 정지용은 이 작품 『湖水』에서 조사 ‘—밖에’는 띄어쓰기를 하고 있다.

정지용은 이러한 격조사와 보조사 그리고 어미의 경계를 통과하며 비문법적인 언어구사를 시도하지만 독자와 의미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해결의 실마리는 향토어인 옥천의 방언<sup>31)</sup>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3) 고영근·구본관, 앞의 책, 149~174면.

24) 국어국문학회, 앞의 책, 2317면.

25) 국어국문학회, 위의 책, 820면.

26) “최현배의 ‘우리말본’ 이래 학교문법에서는 의존용언으로 보아 왔다.” 민현식, 『국어정서법 연구』, 태학사, 2011, 215면.

27) 권영민, 앞의 책, 327면.

28) 남기심·고영근, 앞의 책, 70면. 고영근·구본관, 앞의 책, 65면에서도 “의존명사는 반드시 그 앞에 관형어가 수식해야 문장에서 쓰일 수 있다”고 언급.

29) “너 밖에(도) 또 있다.”(밖에 : 의존명사). “너밖에 없다.”(밖에 : 한정보조사). “문 밖에 두어라.”(밖 : 자립명사)로 분류. 민현식, 『국어정서법 연구』, 태학사, 2011, 202면.

30) 국어국문학회, 앞의 책, 991면.

31) 실제로 옥천 지역 사람들은 불완전명사인 ‘-수’를 빼고 비문법적인 방언을 구사한다. “이번

현대국어의 방언권은 일반적으로 동북방언, 서북방언, 동남방언, 서남방언, 제주방언, 중부방언의 6개의 대방언권으로 구분한다.<sup>32)</sup> 옥천은 일부 서남방언이 혼용된 중부방언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곳의 방언은 유려한 충청도 특유의 ‘여유로움’의 ‘멋’도 지니고 있다.<sup>33)</sup>

정지용의 『湖水』와 『湖水 1』에서도 그 여유로움은 긴 호흡으로 나타난다.

시적화자는 ‘얼골 하나’야 쉽게 의지적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보고 시픈 맘(싶은 마음)’은 그 깊이를 혜량(惠諒)할 수 없어 고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얼골’은 ‘손바닥 둘’로 ‘폭 가리’면 되는 단순 해결 방안을 모색하나, ‘보고 시픈 맘(싶은 마음)’의 계량은 ‘호수 만’하여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눈 감을’ 방안을 마련하나 이것은 미해결의 문제로 남긴다. ‘눈 감’아서 외면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눈 감’고 ‘보고 시픈 맘(싶은 마음)’을 풀어 영원한 항해를 하겠다는 것인지는 독자들에게 감상의 맥의 추를 넘긴다. 이것이 정지용의 작품이 갖는 또 하나의 흡인력 강한 시풍일 것이다.

정지용의 시적 감성의 확대는 조사와 어미 ‘-야, -로, -만, -하니, -밖에’를 멀리 떼어 놓는다. 이것을 필자는 시적허용과 함께 중부방언의 관점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조사나 어미의 띄어쓰기는 시적허용이라고 보인다. 조사나 어미를 의도적으로 띄어 썼을 때 시적화자가 의도한 주제 의식을 다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의식적인 정서에서 기인한 관습화된 방언<sup>34)</sup>의 부림으로 보인다. 화자인 충청도 사람만이 유지하는 중부지방의 여유로운 멋의 흥취이다. 조사를 띄어 쓰는 여유와 넉넉함은 음성적 특성의 하나인 충청도의 긴 호흡이 가지

---

수혜에 포도하우스 갈무리는 다 하셨는지요?”라고 여쭙면 “그럴 뻐기요(밖에요).”라고 대답하신다. “진지 드셨어요?”라고 여쭙면 “먹을 뻐기요(밖에요). 지가(제가) 안 먹고 배겨요(견딜 수 있나요)?”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에서도 “그럴 수밖에요.”라는 의미지만 불완전명사 ‘-수’를 버리고 조사 ‘-밖에’만 사용함으로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지용 시의 방언들은 이처럼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생 정수병 응(80세), 옥천군 이원면 칠방리 생 이수암 응(73세)의 구술 대답에서도 발견된다.

32) 국어국문학편찬위원회, 『국어국문학자료사전』 상권, 한국사전연구소, 1994, 1203면.

33) 즐고, 「- 정지용 시의 방언 - 충청도만의 여유로운 미학」, 『동양일보』, 2013. 12. 3. 14면.

34) ‘관습화된 방언’이란 중부지방 즉, 충청도 옥천에서 관습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언을 필자가 본고에서 독자적으로 쓰고자하는 어휘이다.

는 어투이다. 이는 충청도인 옥천 지역에서 쓰이는 음성적 호흡의 장단과 밀접한 상태 음성적 방언<sup>35)</sup>의 일종이라 할 것이다.

셋째, 비문법적인 조사의 분리와, 체언 뒤에 와야만 하는 조사 ‘-밖에’는 체언 없이 출현한다.<sup>36)</sup> 조사 ‘-밖에’는 체언 없이 홀로 쓰일 경우에는 자립명사로 ‘외부(外部)’의 의미로 쓰이거나 ‘-밖에’가 ‘의존명사 + 조사’로 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사인 체로 홀로 쓰이면서도 어색하지 않다. 오히려 ‘-(으)르’이라는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하여 ‘-감을’이 관형어가 되어 체언을 수식해야 한다는 문법적 한계를 뛰어넘는다. 또한 관형어는 단독으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그것이 꾸미는 체언 앞에서만’ 나타난다<sup>37)</sup>는 문법의 법칙을 넘

35) ‘상태 음성적 방언’이란 어떤 특수한 지방에 나타나는 음성의 고저나 장단에 의한 음성적 방언의 성격을 띤 방언에 나타난 반언어적 특성인 상태를 이름으로 필자가 본고에서 독자적으로 쓰고자하는 어휘이다.

36) 검토한 텍스트는 이승원 주해, 앞의 책(번호는 필자 임의설정, 밑줄은 필자 강조) : ① 『瀑布』(219면), 4연 “갑자기 호흡어질라니 / 마음 조일 밖에 //”, ② 『溫井』(222면), “(전략) 조찰한 버개로 그대 예시니 내사 나의 슬기와 외품을 새로 고를 밖에!(후략)”, ③ 『流線哀傷』(238면), 9연 “몇길로 휘달리고나서 거북 처럼 興奮한다. / 징징거리는 神經방석우에 소스름 이대로 견딜 밖에 //”, ④ 『그대를 돌아오시니』(342면)(『해방기념시집』, 중앙문화협회, 1945 수록), 5연 “밭이랑 문희우고 / 곡식 앓어가고 / 이마지 하울 가슴마자 없어 / 鎗衣는 커니와 / 戰塵 떨리지 않은 / 戎衣 그대로 보일밖에! //” 체언 뒤에 놓아야하는 조사 ‘-밖에’가 체언 없이 홀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정지용의 수필에서는 그의 시에서 나타난 조사 ‘-밖에’ 쓰임과 다르게 의존명사를 생각하지 않고 관형어 뒤에 붙여 쓰고 있다. (1933년 한글맞춤법통일안 시행이후 의존명사를 붙여 쓰기 시작하였고, 1946년 통일안 총론 3항에 의거 띄어쓰기로 전환하였다. 민현식, 『국어정서법 연구』, 태학사, 2011, 202면.)

검토한 텍스트는 이승원 주해, 앞의 책(번호는 필자 임의설정, 밑줄은 필자 강조) : ① 『耳目口鼻』(271면) “(전략) 대개 경찰범이나 암놈이나 고기스당이에 날카로울뿐인것이 분명하니 또 그리고 그러한 등속의 냄새를 찾아낼때 그놈의 소란한 동작과 황당한 얼굴짓을 보기에 우리는 저우이 괴됨을 느낄수 밖에 없다.(후략)”, ② 『禮讓』(277면) “(전략) 혹은 내가 青春과 流行에 대한 銳利한 判別力을 喪失한 나히가 되어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밤마다 나타나는 그들 青春 한쌍을 꼭 한사람들로 여길수 밖에 없읍니다.(후략)”, ③ 『비』(279 ~ 282면) “(전략) 아픈다가 어디냐고 하면 아픈되는 없다고 할수 밖에 없다. (중략) 그러나 그것은 차스중으로 차가 마시워졌다는것 밖에 아니된다. (중략) 먼저 이마 그리고 겨드랑이 손이 마자 發熱하고보니 손이란 월래 簡易한 診察에나 쓰는것 밖에 아니된다.(후략)”, ④ 『아스팔트』(292면) “(전략) 나의 파나마는 새파라듯 젊을수 밖에.(후략)”, ⑤ 『피피리와菊化』(300면) “(전략) 나라세력으로 자란 술들이라 고소란히 서있을수 밖에 없으려니와 바람에 술소리처럼 안옥하고 서럽고 즐겁고 편한 소리는 없다. 오투이 敗殘한 후에 고요히 오는 慰安 그러한것을 느끼기에 죽한 술소리, 술소리로만 하더라도 문밖으로 나온 값은 칠수 밖에 없다.(후략)”, ⑥ 『비들기』(308면) “(전략) 날김생에게도 워낙 억세고 보면 사람도 쇠를 치며 우는데 밖에 없으렸다.(후략)”

37) ‘밖에’ 대한 사전의 처리. ㉠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은 ‘밖에’를 조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어 언어를 구사하지만 이질감이 없다. 현대 문법에 맞춘다면 ‘눈 감을 수밖에’라고 해야 옳다. 그러나 체언인 불완전명사가 소거당한 채 조사만 부러지고 있다.

넷째, 조사를 따로 떼어놓는 행위는 화자의 상실의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화자는 홍수로 재산을 잃고, 어머니의 가출<sup>38)</sup>로 가정을 잃었다. 일제강점기에 조국을 잃었고, 휘문고보로 유학을 가면서 고향을, 그리고 일본 동지사대학으로 유학을 가면서 조국을 잃은 상실의식이 애수와 그리움으로 전환을 이루게 된다. 그러면서 내면적 자아와 마주하기도 하고 때론 자기정체성의 분열 속에 휩싸이기도 한다. 이러한 상실의식과 애수, 그리고 자기정체성의 분열을 『호수』<sup>39)</sup>에서 조사를 분리하여 나타내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의 상실의식과 애수에 찬 그리움은 화자와 상관관계를 유지하며 일직선으로 직립하게 된다.

필자는 중부지방의 방언에서, 즉 우리의 가슴에 녹아있는 충청도만의 관습화된 방언의 여유로운 미학의 정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언의 의미적 자질을 매개로 정지용은 자신만의 서정미학을 시 속에 생동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 2.2. 음성적 자질

‘문장부호의 사용, 활자의 다양한 배치’<sup>40)</sup>로 새로운 시법을 정착시킨 정지용은 “언어는 시의 소재”, “시의 신비는 언어의 신비”<sup>41)</sup>, “시는 언어와

---

‘밖’에 조사 붙음으로 처리하나 의존명사라는 설명도 따로 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사전만으로는 ‘밖’이 자립명사로 비친다. ⑥ 『국어대사전』(금성출판사)은 ‘밖’을 조사 처리하고, ‘그 밖의 문제’, ‘예상 밖의 일’에서의 ‘밖’은 의존명사 처리하고 있다. 민현식, 앞의 책, 202~203면 참조.

38) “수해로 가난해져 정지용 부친은 술을 마시고 계모를 들이니 친모는 가출을 하게 된다.” 노한나 기록, 『정지용 아들 구관씨가 구술하는 정지용 생애』, 『관성문화』 16집, 육천문화원, 2001, 36면.

39) 1929년 6월 일본 교토 동지사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9월 모교인 휘문고보 영어교사로 취임. 그리고 이듬 해 5월 『시문학』에 『湖水』를 발표.

40) 정낙영 편, 최동호 해설, 『정지용의 시세계와 문학사적 의미』, 『지용시선』, 을유문화사, 2008, 65면.

41) 정지용, 『시와 언어』, 『산문』, 동지사, 1949, 106면.

Incarnation적 일치”<sup>42)</sup>라며 남다른 시법을 구사한다. 이러한 그가 『湖水』에서도 음성적 질서를 유지하며 독자적 시어 조형능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성적 질서는 운율 중에서 율이 기본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의미를 가진 독립 단위를 나타내는 휴지, 발화의 최소단위인 음절, 말의 의미를 분화시켜 뜻을 구별하게 하는 소리의 단위인 음소에 의해 이루어진다.<sup>43)</sup> 이 장에서는 총 2연 6행 30음절, 18어절인 정지용의 『湖水』<sup>44)</sup>에 나타난 휴지, 음절, 음소에 대한 음성적 질서를 탐구함과 동시에 음성적 자질을 살펴보고자한다.

얼골 / 하나 / 야 //  
 손바닥 / 둘 / 로 //  
 폭 / 가리지 / 만, ///

보고 / 시폰 / 맘 //  
 湖水 / 만 / 하니 //  
 눈 / 감을 / 박게. ///

위와 같이 『湖水』에는 큰 휴지(///) 2, 큰 휴지 속에 중간 휴지(//) 3, 중간 휴지 속에 작은 휴지(/) 3으로 나타난다. 이로보아 이 시는 2연 6행 3음보격의 율격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작은 휴지로 구분된 토막 속의 음절 수는 일정하지 않다. 『湖水』의 음절수는 1음절 ~ 3음절까지 보이며 각 음절 수가 나타내는 횟수는 다음과 같다.

음절수	1	2	3
횟수	8	8	2

『湖水』 음절수의 최빈수는 1, 2음절이며 분포는 단음절에 가깝다고 볼 수

42) 정지용, 위의 책, 108면.

43) 국어국문학편찬위원회,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하권, 한국사전연구사, 1994, 2230면. 조동일, 『문학연구방법』, 지식산업사, 2008, 156~157면.

44) 최초본인 『湖水』를 텍스트로 함. 『湖水 1』은 박용철의 편집으로 정지용의 본래 의도와 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있겠다. 이 시의 평균 음절수는  $8+16+6/18 = 30/18 = 1.66 \dots$ 이다. 그리하여 평균 음절수  $n$ 은  $1 < n < 3$ 이다. 결과가 이러할 때 2음절을 기준 음절수라 할 수 있다.

1연의 3행 첫 음보를 a, 2연의 3행 첫 음보를 a'라하고 1연의 3행 둘째 음보를 b, 2연의 3행 둘째 음보를 b'라 하면  $a < \text{평균 음절수}$ ,  $a' < \text{평균 음절수}$ 이고,  $b > \text{평균 음절수}$ ,  $b' \geq \text{평균 음절수}$ 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기준 음절수는 2음절<sup>45)</sup>임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음보격은 3음보임도 알 수 있다. 우리 시가의 정형시 시형인 평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임에 비해 『湖水』는 1연이 15음절로 평시조 음절의 1/3분량이다. 총 2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평시조의 2/3분량인 셈이다. 이것이 시조의 축소형으로 작용되어지고 운율도 또한 축소적 언어를 사용하여 운율을 생산한다고 본다. 이는 정지용이 운율을 미리 염두하고 음절과 음보를 구성함에 조사와 어미를 띄어 쓰는 의도적 처리를 한 결과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 『湖水』는 전통시를 계승하며 가장 경제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3음보의 율격을 형성한 흔적을 보이고 있다.

분절음소가 각 행의 일정한 자리에서 반복되면 운(韻, rhyme)이라하며 우리 시가는 필수적 질서를 이루지는 않는다. 비분절음소의 연속과 변화가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율(律, meter)을 이루는데 기본적 자질 노릇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구실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음에서 『湖水』에 나타난 음소의 자질을 살펴보기로 한다.

〈모음 사용 : ( )는 횟수〉

	전설(평순) 모음	전설(원순) 모음	후설(평순) 모음	후설(원순) 모음
고모음	ㅣ (4)	ㄱ	ㅡ (2)	ㅜ (3)
중모음	ㅓ (1)	ㅕ	ㅗ (1)	ㅛ (7)
저모음	ㅚ		ㅜ (12) <sup>46)</sup>	

45) '한국의 경우 음절수가 가변적인 음보로 이루어진 율격'임. 조동일, 앞의 책, 159면.

46) ㅜ (11) + ㅛ (1).

〈자음 사용 : ( )는 횟수〉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입천장 소리	여린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안울림(예사)소리	ㅂ(3)	ㄷ(2), ㅅ(3)	ㅈ(1)	ㄱ(8)	ㅎ(2)
안울림(된)소리	ㅃ	ㅌ, ㅆ	ㅉ	ㄲ	
안울림(거센)소리	ㅍ(2)	ㅌ	ㅊ	ㅋ	
울림(콧)소리	ㅁ(5)	ㄴ(8)		ㅇ	
울림(흐름)소리		ㄹ(6)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湖水」는 후설모음 계열에 음소들이 집중해 있고, 주로 양성모음인 ‘ㅏ’와 ‘ㅑ’를 시어로 선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행의 끝 어절을 양성모음을 선택하였다가 중성모음에서 음성모음으로 변환하게 된다. 이는 각 모음 음소가 지닌 음성적 자질에서 좌절과 체념의 어두운 이미지로 변환하여 느린 운율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보인다.

또한 자음 음소도 예사소리와 울림소리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각 행의 끝 음절을 울림소리의 사용을 주로 사용하다가 예사소리로 마무리를 한다. 이는 각 자음 음소가 지닌 음성적 자질에서 맑고 밝음의 이미지에서 체념의 탁한 이미지로 변환하여 여유로운 운율의식을 나타낸 시적 실험정신으로 보인다. 이렇게 각 음소들을 실험적으로 제자리에 배치하면서 정지용은 언어의 최소 단위인 음소들에서조차도 감정의 절제 못지않게 언어의 절제를 동시에 이룬다. 이렇게 그는 음성적 질서를 찾아 운율을 형성해내며 음성적 자질을 시 속에 생동시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47)</sup>

### 2.3. 번역의 문제

정지용의 문단에서의 평가는 다양하다. 그의 시는 조선적인 것인데 주로

47) 한편, 「湖水2」는 2음보(1음보 = 2~4음절, 총 2연(4행×6음절 = 24음절). 「지는 해」는 2음보(1음보 = 4음절, 총 1연(6행×8음절 = 48음절). 「땀」는 2음보(1음보 = 4음절, 총 3연(6행×8음절 = 48음절). 「산에서 온 새」는 3음보(1음보 = 2~4음절, 총 4연(8행×10음절 = 80음절). 「별뿔」은 2음보(1음보 = 2~4음절, 총 1연(5행×6음절 = 30음절) 등에서 음절의 완벽한 정형성을 보이고 있다. 검토한 텍스트는 이승원 주해, 앞의 책.

자아와 자연물, 자연물과 자연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관계가 ‘닿음’<sup>48)</sup>으로 나타난다. 또 정지용은 ‘예민한 촉수를 지닌 감각의 시인’이다.<sup>49)</sup> 혹은 그에 대한 향수를 ‘예술적 혁신의 계기로 적극 끌어들이고 있는 것’<sup>50)</sup>이라고 서술되고 있다.

또한, 정지용의 시에 나타난 어휘에 대한 연구<sup>51)</sup>에서 한자어는 시기 구분 없이 두루 사용되었고, 외래어는 초기 시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여 주며, 고어<sup>52)</sup>의 경우는 대부분 후기 시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방언’<sup>53)</sup>은 고어의 사용에 버금가는 빈도수를 기록한다.<sup>54)</sup> 대체로 후기 시보다는 초기 시와 중기 시에서 더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지용 문학의 연구들은 그의 문학에서 삶의 중심을 지키는 지혜로운 균형감각을 독자들에게 제공하였을 것이다. 이에, ‘닿음’과 ‘예민한 촉수’와 ‘조선적인 것’, 그리고 ‘한자어, 외래어, 고어, 방언’의 사용으로 인한 정지용의 시세계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세계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의 시집이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되어 만들어지고 있음에서 증명되어진다고 하겠다.

외국어 번역본은 일본어로 번역된 『鄭芝溶詩選』<sup>55)</sup>과 독일어로 번역된 『정지용 시집(Jeong Jiyong Eine andere Sonne)』<sup>56)</sup> 그리고 윤해연<sup>57)</sup>이 중국어

48) 김신정, 『정지용 문학의 현대성』, 소명출판, 2000, 177면.

49) 이양하, 「바라든 지용시집(4)」, 『조선일보』, 1935. 12. 15. 김신정 엮음, 「정지용 시 어법 연구」, 『정지용의 문학세계 연구』, 깊은샘, 2001, 13면.

50) 김신정 엮음, 위의 책, 115면.

51) 최동호 편저, 『정지용 사전』,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422~426면.

52) “고고, 괴여간, 괴엽[기다], 얼골[얼굴], 어여쁜, 어여뻐[예쁘다]” 등 66회 사용. 최동호 편저, 위의 책, 424~425면.

53) “아춤[아침], 한나잘[한나질], 이실[이슬]” 등 63회 사용. 최동호 편저, 위의 책, 425~426면.

54) 최동호 편저, 위의 책, 425면에서는 “시인의 출생지인 충청도 지방 특유의 방언이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는데, 이는 지방색이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는 정지용의 시세계를 시어 구사의 측면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정지용 문학세계를 전체적으로 조감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5) 정지용 저, 오양호·사노 마사토·심원섭·임용 역, 『鄭芝溶詩選』, 화신사, 2002.

56) 정지용 저, Song Yeonhi 편저, 『Jeong Jiyong Eine andere Sonne』, Hubert & Co Printed in Germany, 2005. (송연희 편저로 간행된 형태라 정지용의 대부분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57) 길림대학교 교수. 「정지용 시와 한문학의 관련 양상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정지용 후기 시와 선비적 전통 : 「장수산 1」과 「인동차」를 중심으로」, 『시와시학』 통권 50호,

로 번역한 정지용 작품<sup>58)</sup> 등이 있다. 이 외국어 번역본 『호수』에 나타난 미적 운율의 처리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일본어로 발간된 『鄭芝溶詩選』은 역자들의 서(序)와 『白鹿潭』(1941)에서 「장수산 1」의 13편, 『鄭芝溶詩集』(1935)에서 「海 1」의 42 편 등 정지용의 시를 총 55편을 번역하여 놓고 있다. 그리고 김용직의 「純粹詩の自己克服」, 사노 마사토의 「あとがき」, 이승순의 「補譯のことば」과 정지용연보(鄭芝溶年譜)<sup>59)</sup>로 구성되어있다.

「湖水 1」의 일본어 번역을 살펴보겠다.

湖水 1<sup>60)</sup>

顔 一つなら  
手のひら 二つで  
すっぱり隠れるが

會いたい 心は  
湖水のようで  
目を 閉じるだけ

일본어 번역본 「湖水 1」에서는 ‘조사’의 띄움이나 나타나지 않는다. 1연 1행의 ‘顔’과 ‘一つなら’, 2행의 ‘手のひら’와 ‘二つで’, 2연 1행의 ‘會いたい’와 ‘心は’, 3행의 ‘目を’와 ‘閉じるだけ’의 사이만 띄어쓰기를 해놓고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湖水」와 「湖水 1」의 1연 3행에서 보여준 ‘,’와 2연 3행에서 보여준 ‘.’가 소실되었다.

---

시와시학사, 2003 등이 있음.

58) 한글 본을 먼저 실고 중국어 본을 나란히 배열해 놓는 형식인 이 작품집에 『호수』는 번역되어 있지 않으나 정지용 소개와 「카페 프란스」, 「향수」, 「고향」, 「장수산 1」을 소개하고 있다. 윤해연(尹海燕) 편저, 『韓國現代名詩選讀』, 민족출판사, 2006, 73~86면.

59) “本籍 忠清北道 沃川郡 沃川面 下桂里 40番地”로 표기한다. 정지용, 오양호·사노 마사토·심원섭·임용 역, 앞의 책, 144면. 그러나 탄생지와 관련, “육천군 내남면”으로 망기(望記)하고자 한다. 참고, 「정지용 생애 재구 1」, 『2013 정지용 문학포럼』, 육천군·육천문화원·지용회, 2013, 41~50면 참조.

60) 정지용 저, 오양호·사노 마사토·심원섭·임용 역, 앞의 책, 106면.

한국어본 『湖水』와 『湖水 1』이 갖는 “보고 시픈 맘(싫은 마음)”은 “호수”만 하다는 은유로 그리움의 확산을 성립시키고 있다. 그리움의 확산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화자는 마침내 심적 동결상태에 도달한다. “주제와 전달수단은 당연히 기억 연상에 효과적”이며 “우리는 은유의 토대까지 함께 기억”<sup>61)</sup>한다. 그러나 일본어 번역시에서는 어미나 조사의 띄어쓰기와 문장부호가 은유의 토대인 전달수단으로 작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눈 감을 밖에”에 대한 무한의 그리움을 훨씬 반감시키고 있다.

독일어로 발간된 Song Yeonhi의 『Jeong Jiyong Eine andere Sonne』는 작품 I부~V부와 부록(Anhang)으로 구성되어있다. 『Jeong Jiyong Eine andere Sonne』 I부에는 『별뚱(Sternschnuppe)』 외 초기 민요조의 동시 21편, II부에는 1926~1929년의 『카페 프란스』 외 시 28편, III부에는 1930~1935년의 『겨울(Winter)』 외 시 42편, IV부에는 1936~1943년의 『船醉 2(Seekrankheit 2)』 외 시 28편, V부에는 1945~1951년의 『그대들 돌아오시니!(Ihr kehrt zurück!)』 외 시 2편을 담고 있다. 그리고 부록(Anhang)에는 연보(Zeittafel), 맺음말(Nachwort)과 박용철(1935), 양주동(1933), 이양하(1935), 김기림(1939) 등의 평(Würdigungen)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정지용의 『湖水 1』을 독일어 번역본에서 살펴보겠다.

See 1<sup>62)</sup>

Ein Gesicht allein  
könnte man mit zwei Händen  
ganz bedecken.

Die Sehnsucht aber ist  
groß wie der See -  
da schließe ich einfach die Augen.

61) Ellen Winner, 이모영·이재준 역, 『예술심리학』, 학지사, 2011, 371면.

62) 정지용 저, Song Yeonhi 편저, 『Jeong Jiyong Eine andere Sonne』, Hubert & Co Printed in Germany, 2005. 87면.

위에서 논의한 한국어본 「湖水」와 「湖水 1」의 1연 3행에서 보여준 ‘;’가 독일어 번역본에서는 ‘.’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2연 2행의 ‘호수 만 하나’가 독일어 번역본에서는 ‘groß wie der See - ’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을 사용하여 ‘호수만큼 커다랗게 그리움이 성장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적 장치는 한국어에서 의도적인 조사 분리로 획득되어진 효과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정지용의 「호수」에서는 비문법적인 조사의 의도적 분리와 체언인 의존명사에 붙여 써야 제 기능을 발휘하는 조사 ‘-밖에’가 홀로 쓰여도 시(詩) 속에서 의미의 변질이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긴장된 시어(詩語)가 되어 독자들은 고흘적(蠱惑的) 선율에 침잠(沈潛)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언어의 마술사 정지용이 “한국어를 깊이 연구해서 한국어를 새로운 언어로 만드는 것을 목표”<sup>63)</sup>로 하여 한국인의 정서를 아름다움으로 노래한 결과일 것이다.

이처럼 정지용의 시에서는 방언도 많이 쓰이고 있는 한편 그의 시는 한국시를 발신자로 하여 세계적으로 회자(膾炙)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미 발간된 외국어 번역본 발굴과 함께 영어, 프랑스어 등으로의 번역작업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바이다. 그런데 번역시 정지용 시가 가진 음보와 운율이 사라지거나 희석되고 만다. 특히 이때 음보를 어떻게 살려야 미적운율을 끌어낼 수 있는지는 여전히 역자들의 과제라 할 것이다.

### 3. 결론

본고는 정지용의 「호수」에 나타난 조사와 어미 그리고 방언에 대해 초점을 두고 서술하였다. 또한, 표준어와 방언 사이에서 띄어쓰기와 비문법적인 언어구사가 중부 방언권에 속한 충청도 옥천지방에서도 구사·계승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지용의 시 「호수」에서도 조사 띄움과 비문법적 언어구조가 발견되고 그것은 관습적 방언으로 성립되어 아무런 불편을 느낄 수 없는 의

63) 사나다 히로코(眞田博子), 『最初の 모더니스트 鄭芝溶』, 역락, 2002, 38면.

사소통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있었다.

필자는 정지용의 시 『호수』를 분석하여보고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조사를 체언에 붙여 쓰는 규정이 일반화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이 시행된 이후인 『정지용시집』(1935)에도 조사와 어미의 띄어쓰기는 여전하다는 것. 둘째, 관형어 다음에 의존명사가 소거된 채로 조사 ‘-밖에’가 쓰여 정지용만의 독특한 어법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 셋째, 휴지나 음절 그리고 음소의 음성(音聲)적 질서에서 기인한 음성적 자질을 찾을 수 있다는 것. 넷째 외국어본 『정지용시집』에서의 시 양상 특히 『호수』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본고는 정지용 작품의 근원적인 언어발원지를 찾고자하는 노력의 일종에서 출발하였다. 그의 심중에 품고 있던 고향의 언어 의식, 떠남과 동시에 그리움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직립인간의 속성을 그도 또한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선행 연구자들은 『호수』에서 어떤 시적 의도는 없었다거나 생각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향토어의 부림’과 ‘관습화된 방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사와 어미 ‘-야, -로, -만, -하니, -밖에’를 멀리 떼어놓음으로써 획득되어진 충청도 특유의 ‘여유로움’과 ‘멋’을 읽어내고자 하였고, 시적 화자가 의도한 주제 의식을 수용하려는 시적허용으로도 보았으며, 체언인 의존명사가 소거된 채 조사만 부려져 상실의식과 애수에 찬 그리움을 화자와의 상관관계를 유지한 채 운율의식으로 작용됨도 알게 되었다. 한편 『瀑布』, 『溫井』, 『流線哀傷』, 『그대들 돌아오시니』 등의 시에서도 체언인 의존명사 없이 조사만 쓰이고 있음이 발견되고 『지는 해』, 『띄』, 『산에서 온 새』, 『별뚱』 등에서 음절의 정형화된 질서를 찾을 수 있는 바, 문법적 연구가 이 작품들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후학들은 정지용 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이미 발간된 외국어 번역본 발굴과 영어, 프랑스어 등 새 외국어 번역본을 출판하여 그의 황홀한 시적 정서를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노력할 것을 기대하여 본다.

## 〈참고문헌〉

-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11.
- 국어국문학편찬위원회, 『국어국문학자료사전』상권, 한국사전연구사, 1994.  
\_\_\_\_\_, 『국어국문학자료사전』하권, 한국사전연구사, 1994.
- 국어국문학회,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2001.
- 권영민, 『정지용 詩 126편 다시 읽기』, 민음사, 2004.
- 김묘순, 『정지용 생애 재구 I』, 『2013 정지용문학포럼』, 옥천군·옥천문화원·지용회, 2013.
- \_\_\_\_\_, 『- 정지용 시의 방언 - 충청도만의 여유로운 미학』, 『동양일보』, 2013.
- 김신정, 『정지용 문학의 현대성』, 소명출판, 2000.
- \_\_\_\_\_, 『정지용 시 어법 연구』, 『정지용의 문학세계 연구』, 깊은샘, 2001.
- 김재홍 편저, 『한국현대시 시어사전』,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3.
-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2013.
- 민현식, 『국어정서법연구』, 태학사, 2011.
- 사나다 히로코(眞田博子), 『最初の 모더니스트 鄭芝溶』, 역락, 2002.
- 옥천군, 『관성문화』 제16집, 옥천문화원, 2001.
- 윤해연 편저, 『韓國現代名詩選讀』, 민족문학사, 2006.
- 이승원 주해, 『원본 정지용 시집』, 깊은샘, 2008.
- 정낙영 편, 『지용시선』, 을유문화사, 2008.
- 조동일, 『문학연구방법』, 지식산업사, 2008.
- 정지용, 『산문』, 동지사, 1949.
- \_\_\_\_\_, 『오양호·사노 마사토·심원섭·임용 역, 『鄭芝溶詩選』, 화신사, 2002.
- \_\_\_\_\_, 『Song Yeonhi 편저, 『Jeong Jiyong Eine andere Some』, Hubert & Co Printed in Germany, 2005.
- 최동호 편저, 『정지용 사전』,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_\_\_\_\_, 『정지용 시와 비평의 고고학』, 서정시학, 2013.

Ellen Winner, 이모영 · 이재준 역, 『예술심리학』, 학지사, 2011.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지용의 시 「호수」를 분석하여 의미적 자질과 음성적 자질 그리고 외국어 번역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조사나 어미 ‘-야, -로, -만, -하니, -밖에’를 띄어쓰기함으로 획득되어진 충청도 특유의 ‘여유로움’과 ‘멋’을 읽어낼 수 있었다. 둘째, 체언인 의존명사 ‘수’가 소거된 채 조사 ‘-밖에’만 부러서 관습적 방언과 3음보 운율이 작용됨도 알게 되었다. 셋째, 「瀑布」, 「溫井」, 「流線哀傷」, 「그대들 돌아오시니」, 「지는 해」, 「띠」, 「산에서 온 새」, 「별똥」 등에서도 조사만 쓰이거나 음절의 정형화된 질서를 찾을 수 있었다.

이에 정지용 시의 연구가 방언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하고, 후학들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외국어 번역본 발굴과 함께 새 외국어 번역본 출판에 힘을 쏟음으로써 그의 시적 정서의 세계적 확산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정지용, 「호수」, 조사, 의존명사, 띄어쓰기, 관습적 방언, 3음보, 번역본

【Abstracts】

## A study on Jeong Ji-yong's poem 「Lake」

Kim Myo-soon

This study examines meaning disposition, phonetic disposition, and translation for analyze Jeong ji-yong's poem 「Lake」.

Firstly, it is possible to read-off chung-cheong's unique characteristics of 'breadth of mind' and 'sophistication' because the postposition or wording ends such as '-ya, -ro, -maan, -hani, -bbakae' are spacing from each other. Secondly, by using a postposition '-bbakae' without dependant nouns 'su', is applied to conventional dialect and trimeter rhythm. Thirdly, we can find that only postpositions are used or standard pattern of syllable in poems such as 「Waterfall」, 「Onjung」, 「Yu.sun.ae.sang」, 「They come back」, 「Setting sun」, 「ddui」, 「Bird from mountain」, 「Shooting star」.

At the end, a study Jeong ji-yong's poem should be expanded to a dialect. And younger students should discover if by chance a published translation and publish a new translated book. This way, we must contribute and his poetic sentiment spread in the world.

Key words : Jeong Ji-yong, 「Lake」, postposition, dependent noun, spacing, conventional dialect, trimeter, translation

이 논문은 2014년 6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4년 8월 1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4년 8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